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 옥 임 · 문 희**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The Effect of Self Esteem on Psychological Well Being in Elderly Women -Focusing on Family Support as a Moderator-

Park, Ok Im · Moon, Hee*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Gwangyang,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derly women on self 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n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hundred and six of elderly women who used senior welfare centers had been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and their questionnaires had been filled out during personal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had been analysed by using SPSS Win 15.0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vel of self-esteem perceived by elderly women was a little bit higher than middle level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ppeared to be moderate.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self esteem of elderly women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self esteem, the high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ly, family support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 to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it were, the higher the perception level of elderly women was, the higher impact of their self esteem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family support which is being weakened due to family nuclearization as well as mechanisms for improving family support.

Key words: self esteem, psychological well being, family support

이 논문은 2012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2년 5월 14일 심사일: 2012년 6월 29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3일

†Corresponding Author: Moon, Hee Tel: 82-61-760-1446
e-mail: moon6404@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Erikson은 노년기는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사회적으로 후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들은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각종 기능이 저하되고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 등이 축적되면서 신체적, 심리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된다(Lee 2005).

최근에는 인생의 발달시기 중 노년기가 길어지고 비중이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잘 적응하여 질적으로 풍성하고 후회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Jung 2010). 노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생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에 대한 감정이다(Kozma et al. 1991).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따라서 노인들이 노년기의 긍정적인 적응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적 특성, 환경적인 영향, 시대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에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변인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있다(Kim 2008). 자아존중감이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며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는 것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로(Rosenburg 1965)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실생활에 만족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Oh & Choi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은 삶에 만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이나 소외 및 노후생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으며 힘든 생애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 한다(Kim & Han 2004).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은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Jeon 2008; Lee 2006; Son 2005).

하지만 노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 노화에 따른 건강의 약화와 만성적 질병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손상을 쉽게 경험한다(Kim 2010).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들은 그들 자신을 가치없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확신의 정도가 결핍되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결국은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유지는 건강한 노후의 삶과 직결되며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 자아존중감의 유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Kim 2005). 가족은 노인에게 일차적인 집단이자 삶의 윤리로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가족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리적·신체적 기능이 계속 약화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가족의 지지는 더욱 중요하다. Kim(1991)은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아존중

감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난 Lee(1989)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노인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Kim et al. 2008; Jeon 2008; Seo & Jeong 2010; Song 2007; Yeo 2010) 가족지지와 심리적 안녕감(Jeon 2008; Kim 2002; Son 2005; Song 2001)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이들 세 변수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 등의 가족과 사회·환경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지지 기능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Kang 2010).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간의 강한 유대는 한국노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여전히 노인부양의 대부분이 가족에게 책임 지워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변수를 함께 고려한 한층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여성노인이 13.4%로 남성노인의 9.3%보다 더 많으며 평균수명 또한 여성이 83.3세로 남성노인의 76.5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될수록 여성노인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인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에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Lee & Jeong 2000; Shin 2010).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고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지지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는 전라남도 도농통합도시인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S시에 위치한 3개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여성노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작성이 가능한 여성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대일 질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3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분석 자료로 적합한 설문지를 선별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는 총 206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가 각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80세 이상은 27명으로 13.1%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노인은 88명으로 42.7%이었고 57.3%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정도는 무학이 32.0%, 초등학교 졸업이 4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가 없는 여성노인은 48명으로 23.3%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독교가 74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4.8%, 천주교 13.6%순이었다. 대상자 중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173명(83.9%)으로 대부분이 가끔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65 ~ 69 yr	60 (29.1)
	70 ~ 74 yr	59 (28.6)
	75 ~ 79 yr	60 (29.1)
	over 80 yr	27 (13.1)
Partner	Yes	88 (42.7)
	No	118 (57.3)
Education	Non	66 (32.0)
	Elementary school	85 (41.3)
	Middle school	25 (12.1)
	High school	24 (11.7)
	College or over	6 (2.9)
Religion	None	48 (23.3)
	Protestantism	74 (35.9)
	Catholicism	28 (13.6)
	Buddhism	51 (24.8)
	Others	5 (2.5)
Exercise	None	33 (16.0)
	Occasionally	94 (45.6)
	Regularly	79 (38.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bad	15 (7.3)
	Bad	60 (29.1)
	Normal	92 (44.7)
	Good	32 (15.5)
	Very good	7 (3.4)
	Total	206 (100.0)

정도는 보통이다가 92명으로 44.7%를 차지하였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노인은 28.9%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36.4%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도구

1) 심리적 안녕감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를 Cho(2007)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개인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6가지 항목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56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자율성은 .5358, 긍정적 대인관계 .7404, 삶의 목적 .5353, 개인성장 .6003, 자아수용 .5832, 환경에 대한 통제력 .5059이었다.

2) 자아존중감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94이었다.

3) 가족지지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척도는 Cobb(1979)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Kang(1984)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Jeon(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0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첫째,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지지 수준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Mean ± (SD)
Self esteem	3.36 ± (.51)
Psychological well-being	3.18 ± (.44)
Autonomy(AU)	2.94 ± (.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PR)	3.26 ± (.35)
Purpose in life(PL)	3.17 ± (.71)
Personal growth(PG)	3.12 ± (.67)
Self acceptance(SA)	3.14 ± (.73)
Environmental mastery(EM)	3.46 ± (.84)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은 5점 만점 중 3.3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Yeo(2010)의 연구결과인 3.41점,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8)의 3.0점(4점 만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 & Baek(2002)의 3.41점 보다는 약간 낮았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010)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인 3.02점이었으며,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Ahn(2003)의 연구결과인 3.31점이었다. 한편 60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2)의 3.13점, 시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3.11점보다는 약간 높았다.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젊거나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기에 접어들면서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가족의 중심 인물로서 존경을 받던 위치에

서 소외되고 짐스러운 존재로 밀려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Ahn 2003). 또한 인생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볼 때(Cronch 1983) 노인이 되어 역할상실, 지위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력의 상실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Kim 2005) 사료된다.

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3.18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영역별 지각 수준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3.26점, 삶의 목적 3.17점, 자아 수용 3.14점, 개인 성장 3.12점 순이었으며, 자율성은 2.9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3.1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 순이었으며 개인성장의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5)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18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 본 Kim(2008)의 연구 결과인 3.16점과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Jung(2010)의 연구에서는 3.5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Shin(2010)의 2.0점(3점 만점),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Beum(2010)의 연구에서도 3.51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좀 더 낮게 나타난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거나 유배우자율이 적었으며 건강상태를 더욱 나쁘게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정된 모델은 F값 104.732

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모델설명력(Adj R^2)은 33.6%이었다. 즉, 여성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 Kim과 Han(2004), Kim(2005), Kim(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견해를 자원이라고 볼 때(Pearlin et al. 1981), 노년기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의 의미는 높은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노인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감소와 손상, 지위와 역할의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Kim 2008) 그 결과 심리적인 안녕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노화에 따른 상실감에 따라 쉽게 저하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Table 3. Simple regression of the self esteem on psychological well being

	B	SE	β	t	p
Constant	1.489	.167		8.907	.000
Self esteem	.512	.113	.582	4.528	.000
adjusted $R^2 = .336$					
$F = 104.732^{***}$					

3.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변수들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Psycho. well being	AU	PR	PL	PG	SA	EM
Self esteem	.618 ^{***}	.366	.503 ^{***}	.410 ^{***}	.446 ^{***}	.494 ^{***}	.522 ^{***}
Family support	.558 ^{***}	.249 ^{**}	.523 ^{***}	.406 ^{***}	.330 ^{***}	.398 ^{***}	.417 ^{***}

* $p < .05$ *** $p < .001$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있어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나타난 2단계의 회귀식 R^2 와 여기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 증가된 3단계의 $R^2(\Delta R^2)$ 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의 R^2 와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R^2(\Delta R^2)$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95.5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481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이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66.6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3의 설명력은 .491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2(\Delta R^2)$ 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Jeon(2008)은 가족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영역에서 가족과 개인이 매우 밀

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 들은 가족을 중시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서 가족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노인이 가족 들로부터 애정적으로 결속되었다고 믿음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환경을 통제· 지배하는 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 영역 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긍정적 대 인관계, 개인성장 그리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3개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한 Son(2005)의 연구에서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환경 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

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긍정적 대인관계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27.56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06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의 설명력이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 합성 F값은 19.8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의 설명력은 .217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 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2(\Delta R^2)$ 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대인관계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Step I			Step II			Step III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503	.049	.582***	.336	.049	.388***	.835	.237	.966***
Family support				.302	.040	.429***	.740	.208	1.053***
Self esteem × Family support							-.132	.061	-1.030*
Adj R ²		.336			.481			.491	
△ R ²		-			.145			.009	
F		104.732			95.501			66.622	
P		.000			.000			.000	

*** $p<0.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R

	Step I			Step II			Step III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162	.034	.312***	.078	.036	.152	-.016	.054	-.003
Family support				.209	.038	.377***	-.073	.079	.132
Self esteem × Family support							.037	.019	.361*
Adj R ²		.093			.206			.217	
△ R ²		-			.113			.011	
F		21.934			27.569			19.890	
P		.000			.000			.000	

* $p<0.05$ *** $p<0.001$

와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대인관계는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화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활동의 제약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대인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족지지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결과 여성노인은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Han et al. 2008)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개인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29.1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15로 개인 성장의 설명력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21.84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의 설명력은 .234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19%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2(\Delta R^2)$ 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개인 성장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인들은 가족의 유대관계가 그들의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가족의 도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지지에 의한 노인의 긍정적인 적응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미래에 대하여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G

	Step I			Step II			Step III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419	.064	.414***	.311	.069	.308***	.117	.105	.116
Family support				.271	.074	.251***	-.057	.153	-.053
Self esteem × Family support							.088	.036	.447*
Adj R ²		.167			.215			.234	
ΔR^2		-			.118			.019	
F		42.171			29.100			21.841	
P		.000			.000			.000	

* $p<.05$ *** $p<.001$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EM

	Step I			Step II			Step III		
	B	SE	β	B	SE	β	B	SE	β
Self esteem	.520	.081	.412***	.316	.082	.251	-.011	.123	-.009
Family support				.513	.088	.380***	-.041	.180	-.030
Self esteem × Family support							.149	.043	.606*
Adj R ²		.166			.281			.319	
ΔR^2		-			.115			.038	
F		41.716			41.153			33.030	
P		.000			.000			.000	

*** $p<.001$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형2의 적합성 F값은 41.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형2의 설명력은 .281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이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 F값은 33.0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3의 설명력은 .319로 모형2의 설명력보다 .038%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2(\Delta R2)$ 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의 관계는 가족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약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생시기 보다도 많은 상실을 겪는다. 때문에 개인의 적응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데(Jung 2010) 이때 가족지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되고 그 결과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 영역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의 3개 영역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6개 하위영역의 합을 의미한다고 볼 때(Choi 2009) 이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전라남도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중간수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 수용, 개인성장 순이었으며 자율성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

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 영역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와 개인 성장 영역의 3개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주요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노인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는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인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가족지지가 이루어지는 노인에게는 가족지지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가족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에게는 가족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이 연구는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노인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낮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관계의 질적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이나 가족지지가 어

려운 노인에게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지 지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n YM(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2(4), 576-585.
- Beum KA(2010) The effects of the social skill train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Cho YJ(2007)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on elderly women's subjective well-being : an application of the demand- control-support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WH(2009) A study on periodic exerci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Choi YH, Baek KS(2002)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of the elderly. *J Korean Community Nurs* 13(1), 39-47.
- Cobb S(1979)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ronch MA(1983) Enhancement of self esteem through the life span. *Family & Community Health* 6(2), 11-28.
- Han GS, Park SW, Kim SM, Yang SH, Kim MH et al.(2008)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 Gomoonsa: Seoul.
- Jeon BJ(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11(1), 107-130.
- Jeon EH(2008)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recognized by elderly on one's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Jeon JH(2008) How recreation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effectively influences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Jung MK(2010a) The study on resilience in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Jung SY(2010b) A Study on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t Welfare Facilities for El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ang HM(2010) The study on depression in single elderl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ang HS(1984)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BI(2005) The relations between self esteem, self care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home dwelling elderly. *J Korean Community Nurs* 16 (4) 415-423.
- Kim CS(1991)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in chronic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HS, Y SJ, H KR(2002) The relation of cognitive function, physical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elderly women in the community. *J Korean Gerontol Nurs* 4(2), 163-175.
- Kim HY(2010) The self esteem and caregiving consciousness of elderly and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Y(2002)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elation with children and personality on the old men's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Y(2008) Effect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Kim KB, Song KS, Sok SH(2008)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of the elderl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7(1), 65-74.
- Kim MJ(2005)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Asan.
- Kim MS, Kim HW, Cha GH(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 - 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Soc & Personality Psychol* 15(2), 19-39.
- Kim TH, Han EJ(2004) Relationship of self 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 to psychological well being among living alone elderly people. *J Family Relations* 9(3), 81-106.
- Kozma A, Stones MJ, Mcneil JK(1991) *Psychological well being in later life*. Toronto: Butterworths Canada.
- Lee DS, Jung HJ(2000) Variables belated to quantity of life of elderly women residing only with their spouses and of those with their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5(2), 67-91.
- Lee HJ(2006) The factors affecting resource utilization time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O(201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life

- str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MS(2005)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of the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S(2002)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cultural norms, family support, and public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functionally disable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ee WJ(2006)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Nurs Sci* 18(2), 31-38.
- Lee TW(1989)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adult person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h MN, Choi WS(2005) A study o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home and facilitie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3(3), 105-118.
- Pearlin L, Lieberman M, Menaghan E, Mullan J(1981) The stress process. *J Health & Soc Behavior* 22, 333-356.
- Ryff C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onality & Soc Psychology* 57(6), 1069-1081.
- Rosenberg M(1965) Which significant others?. *Am Behavior Scientist* 16, 829-860.
- Seo HS, Jung IS(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in home dwelling elders. *J Korean Gerontol Nurs* 12(1), 1-9.
- Shin CS(2010) Effec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in ru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aejeon.
- Son DS(2005) The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Korean J Gerontological Soc* 25(4), 205-217.
- Song KS(2007)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in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Song RH(2001) A study o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0(4) 473-481.
- Yeo YO(2010)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tivity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of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